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칼럼의 눈

문화칼럼

2007년 대선 승자, 아직 아무도 모른다



김행

여론조사는 대선 점수표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 역사는 늘 '민심'의 편이었다.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지율 50%를 넘는 막강후보다. 맞수를 자임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20%내외다.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2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여타 후보들의 지지율까지 몽땅 합쳐도 이 후보에 뒤진다. 이렇다 보니 2007년 대선은 거의 과장 분위기다.

대개 기자들은 자기가 출입하는 정당에 기본적으로 애정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신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조차 "그냥 이명박이 먹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신당 안에서부터 파색이 진하게 느껴진다. 신당의 한 중진의원인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3카드 중 가장 배드(bad)카드를 뽑았다. 천신만고 끝에 뒤에 결국 호남후보를 뽑은 셈 아니냐? 지역대결구도로 가면 선거는 하나마나"라며 한숨지었다.

4가지 대결구도 가능

그러나 2007년 대선승자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5년 전 이맘때를 보자. 2002년 10월 24일 연합뉴스를 보면 "10월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33.9%, 민주당 노무현 후보 19.2%,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 28.0%..."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후보 순이다. 이때만 해도 대선구도는 이회창 후보 대 정몽준 후보였다. 노 후보는 당

시 겨우 20%를 넘보는 3등 후보에 불과했다. 그랬던 구도가 '후보단일화'라는 '기적 같은' 변수와 맞닥뜨리자 일거에 무너졌고, 결국 판세는 뒤집혔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기적'을 일으킬 지도 모르는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났다.

우선 이회창 변수다. 만약 그가 출마한다면 지금까지의 대선구도는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 대략 네 가지의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 시나리오는 이회창, 이명박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고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도 각자 뛰어 권영길 후보까지 '6자 구도'가 되는 경우다. 제2 시나리오는 이회창,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 단일 후보, 권영길 후보가 맞붙는 '4자 구도'다. 제3 시나리오는 이회창, 이명박 후보를 이회창 후보가 대치하고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후보가 싸우는 '5자구도'다. 제4 시나리오는 이회창 후보와 범여권 단일후보, 권영길 후보가 대결하는 '3자 구도'다. 즉, 아직까지도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선은 그야말로 '구도 싸움' 아닌가? 구도가 바뀌면 판세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 어떤 구도가 어느 후보에게 대운을 가져다줄지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는 끊임없이 저울질한다. 중국엔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출마설' 배경에는 이명박 후보의

'낙마설'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여권이 쥐고 있는 카드를 이용한 범여권의 '판 흔들기' 총공세가 몰아치면 현재의 대선구도에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관 요동칠 변수들 도사려

또 다른 변수는 대선 이슈를 놓고 구축되는 '전선'이다. 이미 각당 후보들은 '이러쿵 퍼병연장'을 두고 날카로운 전선을 구축했다. 이 과정을 통해 후보 간 선명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범여권의 막판 '후보단일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관 요동칠 엄청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선후보와 그들을 뽑는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여론조사 지지를 순위에만 골몰해 일회일비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대선 점수표가 아니다. 민심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참조되는 과학적 도구일 뿐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 역사는 늘 '민심'의 편이었다. 아직 2007년 최종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 중앙일보 기자·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광주공항 국제선 시·도 합의 수용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존치에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25일 "어제 오후 박준영 전남지사와 만나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존치하되 무안공항은 새롭게 계획 중인 국제선과 목표공항 노선을 중심으로 개항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합의된 사항을 청와대와 건교부 장관에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합의 내용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존치에 완전 합의했다고 한데 비해 전남도는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내년 6월까지 유보한다는 것이지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양 지역 간의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는 것을 막고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을 벌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장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양 공항은 이용객 급감으로 공멸할 것이라는 광주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는 강원도 속초·강릉 공항을 폐쇄하고 개항했으나 이용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양양공항의 예에서 입증됐다. 더욱이 광주공항 존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국제선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이전하기에 앞서 신노선 개척 등 현실적인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두 손 놓고 있다가 시민의 노력으로 유지된 광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가져가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를 수용하고 양 공항의 상생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수엑스포 막판 부동표를 공략하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재계, 전남도, 여수시 등은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부동표 국가들이 몰려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국가 등을 상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오는 27일 개최지 결정 투표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막판 유치는 치열하다. 판세는 여수가 조금 앞서 있다고 하지만 모로코와 폴란드의 추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두달새 10개국 이 세계박람회기후(BIE)에 새로 가입했다. 가입할 예정이어서 이들 국가의 선택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25일 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선발대를 보내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막판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유럽에서, 유치위 명예위원장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중남미, 캐나다에서 부동표 국가들을 상대

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쟁국가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모로코는 40대의 젊은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앞장서 BIE 회원국이 가장 많은 유럽과 아프리카 및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열세로 분류돼는 폴란드도 최근 야당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여부는 남은 한달간의 활동에 달려 있다. 낙관은 금물이다. BIE총회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 여수는 모로코와 2차투표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BIE 신규 회원국은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남미 국가가 대부분으로 친 모로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개최지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여수에 두번의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 관건은 부동표 국가 공략이다. 정부는 2차투표 대비책을 비롯,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사성어(古事成語)는 각자의 처지와 관점에 따라 여운과 감동이 다르다. 객지를 떠도는 이들은 '수구초심(首丘初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연인은 '절류(折柳)에 눈시울을 붉힐 것이다. 친구지간엔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생 각날 터이고, 어렵게 공부한 자식은 '맹 모삼천(孟母三遷)을 떠올리며 가슴 저 밑 것이다. 그렇다면 '절영(絶纒)이란 말의 유래를 아시는 지?

춘추시대 초장왕(楚莊王)은 춘추오패(春秋五霸)의 하나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어느 날, 그는 주연을 베풀면서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 허희에게 신하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허희가 차례로 술잔을 올리던 중 갑자기 촛불이 꺼졌는데, 그 틈에 누군가가 끌어당겨 허희를 데려갔다. 허희는 그 신하의 갓끈을 끊은 다음, 찾아내서 처벌해줄 것을 간청했다. 장왕은 그러나 불을 켜지 못하게 한 후 말했다. "술을 취하게 하는 것은 여인의 정속함을 보여주거나 선비를 욕되게 하려

는 게 아니다. 오늘 술 좌석에서 갓끈을 끊지 않는 사람은 연회가 즐겁지 않았다고 불만을 갖는 자다"(王曰 賜人酒使醉失禮 奈何欲斷婦人之節而辱士乎 乃命左右曰 今日與寡人飲 不絕冠纒者不歡)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신하들은 모두 갓끈을 뜯고, 밤 이슬도록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 후 3년, 초나라는 북쪽 진

(晉)나라와 전쟁 중 항상 선봉장을 맡은 장수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장왕이 죽음을 무릅쓰는 까닭을 물으니 장수는 "술에 대처해 무례를 저질렀을 때 왕께서 감추고, 참아주시며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제 죄목 차례로 술잔을 올리던 중 갑자기 촛불이 꺼졌는데, 그 틈에 누군가가 끌어당겨 허희를 데려갔다. 허희는 그 신하의 갓끈을 끊은 다음, 찾아내서 처벌해줄 것을 간청했다. 장왕은 그러나 불을 켜지 못하게 한 후 말했다. "술을 취하게 하는 것은 여인의 정속함을 보여주거나 선비를 욕되게 하려



의 괴를 땅에 뿌려 그녀에 갓끈을 소원해 왔습 니다"고 대답했다. '갓끈을 끊는다'는 뜻의 '절영(絶纒)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장왕이 없다면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부하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조직엔 내일도 없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특별기고

이정록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 순차 이전해야

달 많았던 무안공항 개항을 놓고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광주공항 국제선을 11월 9일부터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대다수 광주시민과 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공항 개항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역여론에는 뚜렷한 두가지 목소리가 상존했다.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광주공항을 존속시키면서 무안공항의 독자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상반된 두가지 목소리가 무안공항 개항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있는가? 이는 전술한 상반된 주장을 조정

이다. 당시에 광주와 무안공항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 아마도 무안공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안공항 개항을 눈앞에 두고 책임공방만을 벌일 수는 없다. 무안공항을 예정대로 개항하면서 조기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여객과 화물이용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와 지역민은 무안공항의 개항 필요성과 무안공항이 향후 우리 지역에서 차지할 역할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반면에 무안공항이 여객과 화물 수요를 견인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광주공항의 기능을 빼앗아 간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광주시, 전남도, 건교부가 유념할 점이다. 따라서 지역내 파열음을 완화시킬

무안공항, 광주공항 기능흡수 전제로 건설

개항은 예정대로... 명칭변경도 고려해 볼만

하지 못한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지역여론을 분열시킨 셈이다.

무안공항 개항이 거론되면서 지역내에서는 광주공항의 기능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불거졌다. 무안공항이 개항되면 광주공항의 기능축소는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화를 키웠다. 건교부 또한 마찬가지다. 공항관련 인프라인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항하려는 조급증이 문제를 키웠다. 특히 광주-무안고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은 광주시민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상공인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이들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무안공항의 건설 배경이다. 무안공항은 광주전남에도 민간공항(광주공항은 군용시설이다)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 10년 전에 시작된 국책사업이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광주공항의 기능이전을 전제로 건설됐다는 점

실적 대안 중의 하나로 광주공항 국제선의 단계적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제선을 일거에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 여객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선만 이전하고, 곁을 마 단계에 있는 노선은 광주공항이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광주시민의 반대여론을 수용하고, 광주-무안고속도로의 미개통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광주시의 하늘길을 열어주는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선의 하늘길을 빼앗긴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공항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개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가 주장하는, 무안공항 개항을 광주-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안공항은 예정대로 개항해야 한다. 그리고 공항의 조 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한다. 무안공항은 무안기업도시, J 프로젝트 등 서남권에서 추진 중인 각종의 대형사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전남대 교수·전 대한지리학회>

의로 칼럼

김창기



입냄새(구취)는 그 자체가 아프다거나 고통스러운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알개 되는 순간부터 남들과 대화에 소극적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증세다.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취의 원인은 어른들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다. 가장 흔한 원인은 불량한 구강위생이다.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특히, 치아 자체가 매우 배열불규칙하게 배열돼 양치질을 해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존재하는 자그마한 틈새들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된다.

취거나 벌리고 잠을 자는 어린이에게서 이러한 구강 건조증이 쉽게 나타난다. 입을 벌린 상태에서 숨을 쉬게 되면 금방 입안이 건조해지는데 이렇게 입안이 마르고 건조가 올라가면서 미생물의 번식이 빨리 진행된다. 단순히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치가 생기기 쉬워지고 잇몸 염증이 생기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는 수면시 타액의 분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 혀를 포함해 입안을 깨끗이 하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면...

음식물 찌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를 내게 되어서 몇 일간 양치를 하지 않을 땐 입안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양치를 구석구석 잘해주고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혀바닥도 닦아주는 것이 좋는데 일반 칫솔로 하기는 힘들므로 혀 세정기를 구입해 혀의 뒤쪽부 분까지 깊숙이 닦아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치수염을 동반한 심한 충치가 있는 경우다. 충치가 심해지는 경우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 냄새가 나고 또한 그 부위가 아파서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으로 구취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입냄새가 난다면 잘못된 칫솔질법·구강관리로 인한 잇몸 염증이거나 발견하지 못한 충치가 대부분의 원인인므로 먼저 치과에 내원해 점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서정 치과의원 원장>

농어촌 보건소에서 임신·출산 지원했다면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분야의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로 병원 유지가 타산이 맞지 않아 인건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도 관내 일부 군(郡)은 아예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또 일부 군은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시설이 전무하다고 한다. 이를 대신할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사정도 열악하기 마찬가지여서 임신·출산 지원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시골 임신부는

아이를 갖고부터 낳을 때까지 진료를 받을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아이를 가지면 의례히 일정한 출산금을 해야 할 판이다.

1인당 GNP 2만달러 나라에서 단지 시골 임신부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일반 병원들이야 그야말로 개인병원이니 농촌에 개설해서 영영해라 마라 할수 없으니 정부는 보건소관리에도 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이항욱·광주시 남구 병림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禰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F A X 227-9500> <F A X 222-0195>
경 제 부 2200-616 여론홍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2-0195>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2-0195>
사 회 2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7> <F A X 222-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